

호쾌한 히가시노 게이고를 기리며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 뜻밖의 부보에 애석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뭔가 힘들 때마다 위로의 답신을 건네주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추리소설의 기본이 담긴 가가 형사 시리즈, 라플라스 시리즈, 매스커레이드 시리즈 등, 편집부와 함께 그의 수많은 작품을 마주했던 시간이 새삼 간절해졌다. 히가시노 씨는 일본을 넘어 한국과 중국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 출판계에 길이 남을 술한 기록을 남겼다. 그를 사랑한 독자들의 밀려드는 애도의 마음이 어찌면, 분명, 어딘가에 가닿지 않을까.

인물들의 실감나는 짧은 대화와 작은 눈빛, 몸짓, 움직임만으로 상황을 묘사하는 담백한 문장, 스피디하게 전개되는 스토리의 흡인력, 교묘한 복선에 인간적 깊이와 온기를 잃지 않는 결말, 한 편의 추리소설을 읽고 훈훈한 삶 한 편을 건너온 듯한 달성감이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추리는 참혹한 악의 묘사보다 우리 주위의 평범한 인물들의 선의가 어떻게 그 악을 해명해 내는지에 집중하였다.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가볍게 읽고, 그러면서도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 작품들로 독자의 지평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작가 생활 41년 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게 해마다 두세 권이라는 일정한 페이스로 총 106권의 작품을 발표했고, 주요 작품들은 영화와 뮤지컬, 연극 무대에 올랐다.

히가시노 씨는 학생 시절부터 양궁을 했고, 야구에는 해설 게스트로 출연할 정도였다. 스키 점프의 과학을 다룬 명작 『조인계획』을 비롯한 ‘설산(雪山) 시리즈’를 낼 정도로 겨울 스포츠에 조예가 깊었다. 봄이 눈을 녹이기 전에 남에서 북으로 갈렌테 설원을 따라가며 활강을 즐기고, 스스로 ‘스노보드 마스터즈’ 대회를 주관할 만큼 사랑했던 분이다.

여전히 왕성한 활동으로 어떤 신작이 나올지 지켜보던 중에 날아온 부보에 황망할 따름이지만, 이제 그의 기나긴 노고에 가만히 인사를 건넬 수밖에 없다. 그가 남긴 106편의 작품 중 31편을 우리말로 옮기며 거장의 고뇌와 기쁨, 때로는 그 호쾌한 장난기의 숨소리를 감지할 수 있어서 참으로 큰 영광이었다. 한평생 독자를 위해 복무해 온 그의 책들이 나미야 잡화점의 빨간 우체통에 기적처럼 오래도록 남아 있으리라 믿는다.

한참 전에 작가 생활 수십 년 기념으로 남긴 글이 아직 기억에 남아 꺼내보았다. 그 마지막 문장을 다시금 새겨볼까 한다.

‘나의 장점은 독자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노력과 연구를 아끼지 않는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나이 탓인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짜내기가 점점 힘들어졌지만, 앞으로도 잠시 더 힘을 내어 글을 써내려가고자 합니다.’

2026년 7월 28일

번역가 양윤옥